

과학기술과 인간의 자유



이 청
(소설가)

25년만에 나는 혼탁하고
어지러운 서울 탈출에 성공,
강원도 영월땅에
열두평 오두막집을 짓고
푸른 산, 맑은 물,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살게 되었다.
이런 시골에 물혀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지만
전화기 한대와 286컴퓨터
한대만으로도 살 수 있도록
과학기술이 내 삶에
'도시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아마 서울올림픽을 앞둔 무렵이었던 것 같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 1천만대 가입' 목표의 달성을 눈 앞에 두고 대대적인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이 회사의 홍보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전화와 문명의 발달'에 대해 전도사처럼 신바람이 나서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전화 1천만대가 가설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집집마다 전화가 있다'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삶의 질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는 단순히 통신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의 패턴을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전화를 중심으로 컴퓨터와 텔레비전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매체들이 결합하여 인간의 활동을 변화시키는 멀티미디어의 시대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이 선생은 출판사나 잡지사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으면 만년필로 원고지에 글을 써서 그것을 챙겨들고 출판사나 잡지사로 가져가지요. 출판사에서는 그 원고를 사진식자기로 조판하여 인쇄소로 넘깁니다. 그 때문에 이 선생같은 분은 출판사가 밀집해 있는 서울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간혹 문인들이 시골에 내려가 살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예외의 일이고, 본인들로서는 현실적인 방법을 희생해도 좋다는 큰 용기가 있어야만 그토록 동경해 오던 시골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멀티 미디어의 시대가 되면 이 선생과 같은 문인들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서울 바닥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가 있어도 출판사나 잡지사는 전화 또는 팩스, 컴퓨터를 통하여 간단하게 청탁을 할 수가 있고, 이 선생도 원고를 작성한 후에 그것을 들고 귀찮게 서울로 올라올 필요없이 컴퓨터를 통해 바로 출판사의 편집실로 원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들어온 원고를 따로 식자할 필요없이 곧장 인쇄소로 넘깁니다. 작기들이 원고 봉치를 들고 우울한 표정으로 서울 거리를 배회하는 그 시간에 산 좋고 물 좋은 시골에 내려가 창작에 전념하거나 아니면 생생한 삶의 현장에 내려가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문화 그 자체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눈 앞에 다가온 보라빛 꿈

인류문명사의 대폭발기였던 20세기가 가고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지금,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한없이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보라빛 꿈이 펼쳐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무한한 힘에 공포감을 느낀 나머지 결국은 문명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갈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기통신공사 홍보책임자의 말은 전자를 대표하는 말이었다. 전화가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 테크노피아의 도래를 앞당길 것이다, 결국 이 세기가 가기 전에 인류는 또 한번 커다란 변혁을 맞이할 것이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우리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이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꿈같은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어왔

다. 실제로 문명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국의 1일 생활권화'라는 기적이 우리 앞에 도래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수년이 지난 지금 부산이나 목포를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진 것은 없다. 전에는 부산에 볼 일이 있어 가게 되면 적어도 며칠을 느긋하게 잡고 출발했는데 요즘은 하루만에 갔다가 되돌아와야 하니 몇 배나 더 분주해졌고 정신적인 피로감은 또 몇 배나 더 쌓인다.

컴퓨터가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오더니 마침내 컴퓨터없는 생활이 불가능하게 돼버렸다. "원고도 자동으로 편집, 송고하고, 모든 예약을 집에 앉아서 처리하고..." 그 꿈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더 분주해졌다. 전에는 대학을 나오면 그러저럭 밥벌이 하는 수단을 지닐 수 있었으나 요즘은 대학을 나온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적응하지 않으면 인생 낙오자가 되기 십상이다.

짐승들은 어머니 배 속에서 나와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단 몇 시간 또는 며칠이면 족하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결과 거기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평생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될 판이다. 눈부시게 발달하는 과학기술은 그것을 습득하는 인간과 습득하지 못하는 인간을 명백하게 갈라놓아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25년만에 흔탁한 서울 탈출

문학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있어서 과학기술의 세계는 이처럼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귀찮고 성가신 것' '조만간 인류를 파멸로 몰고갈지 모르는 위험한 장난감' 정도로 여겨져 경원의 대상이었다. 대도시는 그 시대 문명의 집약이다. 오늘의 대도시를 보면 인간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서울에 첫 발을 들여놓던 그 순간부터 '서울 탈출'을 목표로 정하고 살아왔다. 25년만에 나는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다.

테크노피아는커녕 오물과 소음과 범죄의 온상인 도시, 그곳에 살기 위해 컴퓨터를 새로 배워야하고 전화 사용법을 새로 익혀야 하고, 비디오, 세탁기, 전자렌지... 모든 가전기기의 작동법을 익혀야 하며, 작동법을 몰라 기기가 멈출 때마다 늦잠자는 딸아이를 깨워 온갖 수모를 무릅쓰고 묻다가 마침내 미개인 취급을 받게 되는... 그 서울을 탈출하여 강원도 영월 땅에 열두평짜리 오두막을 지어 푸른 산, 맑은 물,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살게 되었다.

시골로 옮겼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농사꾼이 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배운 것이 그것 뿐이니 글을 써서 살 수 밖에 없는지라 오두막에다 글을 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를 마련하였다. 전화기 한 대와 286컴퓨터 한 대가 도구의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전화를 통해 멀리 떨어진 서울의 출판사와 잡지사로부터 원고 청탁이 들어오고 친구들의 문안 전화도 심심치 않게 걸려왔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어릴적 친구, 유럽에 여행중인 가족으로부터 소식이 날아왔다. 전화기 한 대가 강원도 산골 마을의 오두막집을 지구의 중심으로 만들어 준 것이었다.

아직은 컴퓨터를 통해 원고를 보낸다든가 통신을 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편집자와 필자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차가운 기계를 통해 원고를 주고 받는다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일단 원고가 완성되면 디스켓에 담아가지고 서울로 나온다. 비록 공기는 더럽고 시끄럽지만 정다운 얼굴들이 살고 있는 서울로 나오기 위해 나는 앞으로는 컴퓨터 모뎀을 이용한 원고 송신방법이나 팩스는 사용하지 않을 작정이다.

과학기술이 바꿔놓은 내 삶

문득 생각해 보니 나를 시골로 돌아오게 만든 장본인은 내가 그토록 경원해 왔던 현대 문명의 이기들이었다. 전화가 없었다면, 그리고 시외전화 요금이 날이 갈수록 내려가는 기현상이 없었다면 나의 시골행은 글자 그대로 '은둔'이 되고 말았을 것이었다. 그런 시골에 묻혀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다. 80년대 후반 전기통신공사의 홍보담당자가 말했던 그대로 내 삶은 어느덧 '텔레토피아'의 물결 속에 들어 있었다. 그 과학기술의 발달이 내 삶에 '도시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전화와 컴퓨터와 맑은 물, 푸른 산이 있는 세상, 그 속에서 내가 살 수 있게 해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을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쉽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조만간 '과학기술로부터의 탈출'을 꿈꾸게 될 것이다. ㉞